

# 부성엔지니어링, 석재 건식시공용 삼각앵글 개발

세계 최초, 기존 앵글보다 설치 간편하고 내구성 탁월



◀부성엔지니어링의 오영하 사장

과학적으로 성능이 개선된 유럽 석재 건식시공용 앵글이 국내 업체에서 개발됐다. 부성엔지니어링(대표 오영하)은 기존의 L형 앵글보다 시공이 간단하고 내구성이 탁월한 삼각앵글을 개발해 국제특허와 발명특허, 의장 등록에 출원하고 실용신안에 등록했다. 건축물의 마감공사를 석재로 시공할 때 사용하는 앵글은 그 동안 L형이 세계적인 추세였다. L형은 대리석의 무게, 벽과 마감거리의 간격으로 앵글의 종류가 70여종 이상이나 사용되어 왔고 석재의 하중으로 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삼각앵글은 설치물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삼각형으로 기존 앵글의 문제점을 보완, 성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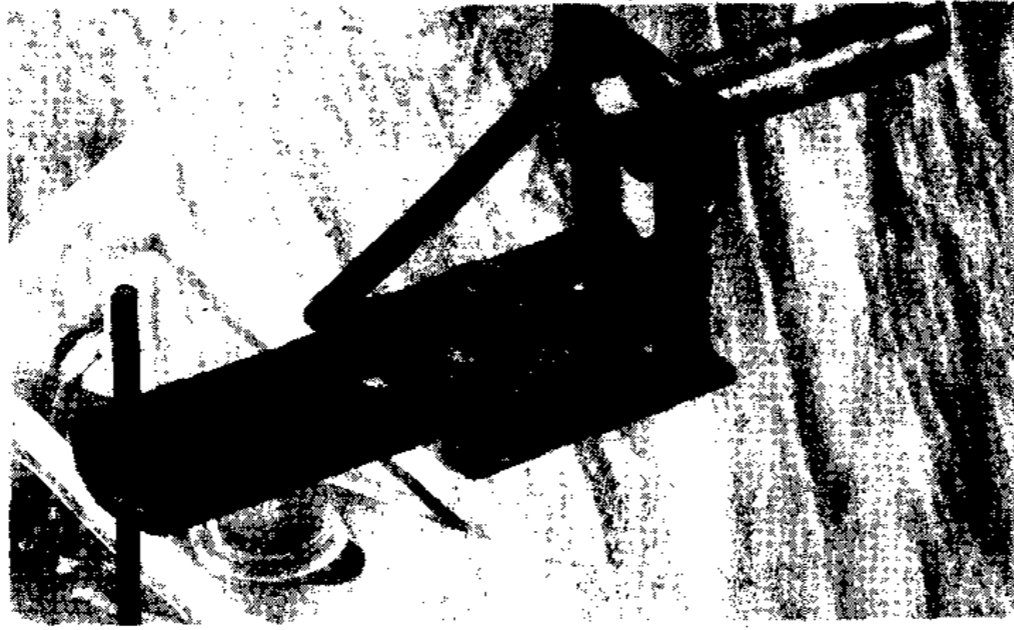
10% 이상 보장되었으며 자재비가 60%이하로 소요되어 가격도 기존보다 20% 저렴한 제품. 10여 종류만으로 부거운 중량을 지탱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공과정에서 석재에 천공할 규격도 적어졌으며 그러한 영향으로 시공시간도 두배이상 빨라졌다.

삼각앵글을 개발한 부성엔지니어링 오영하 사장은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해 현장에서 기존제품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왔다"며 "간단한 구조로도 성능이 향상되고 자재비가 적게 들어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삼각앵글은 앵글 자체의 두

께가 얇아져 생산공정이 간단해졌다. L형앵글의 경우 두께가 너무 두꺼워 연속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 재료절단→프레스연장→공→절단→절곡→포장의 과정을 거치는 프레스 단발 공형으로 생산해왔다. 이에 비해 삼각앵글은 재료절단→프레스(관형, 절곡, 절단 등) 가공→포장의 과정으로 작업공정 수를 2회 줄였다.

오사장은 지난해 10월 한국 화

학시험 연구원에 삼각형과 L형앵글의 내구성의 비교측정을 의뢰, L형앵글이 1221N, 삼각앵글이 1341N의 내구성 수치를 나타내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삼각앵글은 기존 L자형 앵글의 단점을 과학적으로 보완한 대다 기적경쟁력까지 갖춰 국내는 물론 해외 건축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의 (02)2655-6102/3



세계의 장묘문화② 미국

## 장례식장은 일종의 교회, 결혼식도 열려

평장·매장 위주이나 화장도 증가추세

미국의 장묘시설은 국립묘지, 주립묘지, 영묘지 등이 있으나 국립묘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영시설이며 상업적이다. 일반인이 운영하는 묘지와 대부분은 민간주식회사나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묘지 형태, 화장장 시설 기준, 방부처리 등에 대한 규제사항만 관장한다.

미국의 장묘시설은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평지에 주로 있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이 예술·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대부분의 묘지에는 장의소, 묘지, 교회(장례식장), 화장장, 납골시설, 화원, 장의용품 전시실 등이 함께 있어 한번에 모든 장례의식을 치를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원하는 종교의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교별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특히, 장례식장은 결혼식장으로 이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에는 세례, 부활절 행사, 어린이 프로그램, 콘서트 등이 포함되며 주인의 상업적 요구는 수렴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매장위주의 장묘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정부에서 화장을 권장하고 있으며 화장률도 증가추세에 있다. 화장장 시설은 미국인의 장례 풍습에 따라 의식적인 측면보다는 기능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인은 화장절차보다 화장 후 유골을 인수받아 장례를 진행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일반인에게 화장장 출입을 금해 화장장내에는 편의시설을 찾아볼 수 없다. 화장 후 유골은 유족이 가져가거나 유골함에 안치하고 장례식을 치른다. 미국의 장례문화는 산골, 납골, 매장으로 구분되는 섬인데 산골은 아무곳에서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든 납골시설은 지상 매장시설내에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납골구조물에 납골함 상자를 설치하는 형태와 별도로 납골당을 설치하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납골함이 들어가는 재질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속을 볼 수 없는 폐쇄

형과 유리 등으로 되어 있어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개방형이 있다. 즉, 규격 등을 획일화하지 않고 개인선호에 따라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것. 납골함을 열 때는 별도의 비품을 지불해야 한다. 매장지 또는 납골안치지는 모두 영구히 보존되며, 매장의 경우 재산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두 1명의 면적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마저 2~3명을 함께 매장하는 경우가 많아 묘지공간의 활용이 합리적이다. 묘지는 평장을 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입석 묘비는 세울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공원묘지들은 묘지라는 개념이 잘 조성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장묘시설은 다양성이 강조된다. 매장시설은 지하매장묘를 비롯해 육내 및 육외의 자상묘소(Mausoleum)가 있고 납골시설도 지하 납골묘, 육내 납골시설(Mausoleum, Columbarium), 육외벽식 납골시설이 있는데 육내 납골시설의 경우에도 폐쇄형, 개방형이 있다. 이런 시설들은 건축물로서도 우수한 점이 많으며 대개 고급스럽다. 미국의 장묘시설은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은 폭넓고 다양한 선택 기회를 갖는다.

# 국제인증 받은 납골묘 등장

조양고인돌, ISO 인증으로 장묘업계 새바람

납골묘로 일반 제품처럼 국제인증을 받은 업체가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조양고인돌(대표 전창욱)은 국내 장묘업계에서는 처음으로 ISO 9001 및 ISO 14001 인증을 받았다. ISO 인증은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규격이나 표준에 부합하는

납골묘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된 환경경영 및 환경경영 시스템을 통과했습니다. 장묘업계에 있어 이같은 국제적이고 위생적인 서비스 경향이 시작될 것이죠." 조양고인돌의 전창욱 대표(54)는 지난 94년 4월 자본금 3억 원의 조양장례 토털서비스로 시작



## 납골묘는 묘지작업보다 어려워 석재가공기술 부족하면 하자 발생

상품에만 부여하는 것. 조양고인돌의 이번 ISO인증으로 납골묘 사업도 단순한 묘지작업이 아닌 수준 높은 품질과 환경조성을 요구하는 업종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양고인돌이 시공, 작업하는

한 이래 환경친화적이며 첨단 공법을 적용한 납골묘의 판매 및 시공을 비롯, 공원묘지조성 등의 사업을 펼쳐왔다. 98년부터 가족 납골묘 상설전시장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전 대표는 "납골묘는 기존처럼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주는 단순한 묘지작업이 아니다"고 말하며 "기술적인 면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석재 가공기술이 부족할 경우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조양고인돌은 이번 ISO인증 획득을 계기로 납골묘 사업에 품질 및 환경경영 시스템을 본격 도입, 앞으로 납골묘를 가족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구개발(R&D) 부자로 과학적인 장묘문화를 창출하는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031)719-6307 www.igodol.co.kr

### 최고급 석재와 정교한 기술로 창조한 조상들의 안식처

# 가족묘·중중묘·야외납골당

안녕하십니까?  
우리 나라의 오랜 전통 장묘문화인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이 화장을 기피하고 화장을 선호함으로써 묘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국토를 잠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묘지의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00년인 일본 전문고급묘역 수출로 촉여된 노력으로 우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삼미석재는 국토지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고유의 우리가족묘(가족, 중중, 문중 납골묘)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새로운 장묘문화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 삼미석재에서는 다양한 모델, 현명한 설계, 완벽한 시공,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사각묘 1호(회곽형)    골자묘 1호(회곽형)    불교용 영탑    기독교형 납골묘

三美가 자랑하는 세가지의 美

- 石美(최고급 원석) 충남 보령의 최고급 원석으로 제작
- 加工美(세련된 석가공기술과 창조적 디자인) 선진 납골문화권인 일본수출로 입증된 최고 기술과 부설연구소를 통한 다양한 디자인 개발
- 心美(조상을 섬기는 효성) 내 조상을 모신다는 효심으로 설계·시공·사후관리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

**(株)三美石林産業**

서울사무소 / 서울강남구 수서동 725 미시2000 오피스텔 708호  
☎ (02)401-7132    FAX (02)400-2613

본사 및 전시장 / 충남 보령시 용천읍 대천리 36-2  
☎ (041)933-2139    FAX (041)933-2597

www.napgolnara.co.kr    www.smstone.co.kr

최고의 제품으로 꾸며진 (주)삼미석재산업 전시장

찾으시는 길

